

제10강 문체 만들기 I

(1교시)

▲ 문장의 목표, 문체

가. 문체의 정의

: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난, 글 전체의 특색.

글의 내용이나 성질, 또는 목적이나 독자에 따라 문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음.

(라틴어 'stilus'에서 유래한 말로, '말로써 글씨를 쓰는 도구'를 뜻함.)

- * 문체는 곧 그 사람이다.(뷔퐁)
- * 스타일을 짓는 것은 작품을 고상하게 하는 것이다(스탕달)
- * 걸작은 일종의 외국어로 씌어진다(프루스트)
- * '그의 문체는 좋아하지만 그의 사상은 좋아하지 않아'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심코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만다. 문체와 사상은 하나이다.(메리 해스켈)

나. 문체의 종류

ㄱ. 수사학에 따른 분류

- 길이에 따라 - 간결체, 만연체
- 글의 느낌에 따라 - 강진체, 우유체
- 수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 화려체, 건조체

ㄴ. 문학갈래에 따른 분류

- 산문체, 운문체

ㄷ. 문법, 어휘의 특징에 따른 분류

- 구어체, 문어체, 한문체, 국한문혼용체

다. 간결체와 만연체

ㄱ. 간결체의 특징

- 문장이 간단명료하고 축약되어 있다.
- 생략과 압축이 많다.
- 독자는 주어진 내용만으로 상상과 추측을 한다.
- 너무 간결하면 독자가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없게 되고 문장이 딱딱해진다.

예문1)

다음해 봄에도 학이 돌아왔다. 세 마리 새끼를 쳤다. 또, 풍년이였다. 또,. 다음 해 봄에도 학은 왔다. 이번엔 두 마리를 쳤다. 평년이였다.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에서)

예문2)

베이스주자는 바빠졌다. 술병과 잔을 꺼내 사내에게 갖다주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역시 그에게는 등과 잠깐잠깐 손놀림만 보였다. 뭘 만드느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생각이 아니라 말을 하고 싶었으나 상대가 없었다. 예전의 그는 이렇지 않았다. 너무 과묵해서 심심한 사람이었다.

(구경미 「새로운 삶」에서)

ㄴ. 만연체의 특징

- 문장이 복잡하고 길며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많은 단어와 수식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많은 어휘를 알고 있어야 하고, 긴 문장을 무리 없이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문)

정조 임금이 월과(月課)를 면제해 준 이튿날부터, 벼들과 더불어 한강에서 뱃놀이를 하곤 했는데, 그때 술에 취하면 춤추는 기생들 서너를 한 아람에 끌어안고 그들의 목덜미 속에 얼굴을 밀어 넣고 비틀거리면서 돼지 먹따는 듯한 소리로 그 노래를 외쳐 대곤 했다.

(한승원 『흑산도 하늘길』에서)

라. 강건체와 우유체

ㄱ. 강건체

- 문장이 강하고 딱딱하며 무게와 활발함이 있다.
- 강렬한 분노를 나타내거나, 신념, 결의, 극단적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ㄴ. 우유체

- 부드럽고 온전하며 우아한 느낌을 준다.
- 흥분하거나 장중하지 않으며 차분하며 아기자기하다.
-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며 섬세한 느낌을 준다.
- 지나치면 자아도취에 빠져, 필요 없는 수식 등 미사여구만 늘어놓게 된다.

마. 건조체와 화려체

ㄱ. 건조체

- 수식이 없으며 공식적인 내용만 담는다.
- 예술문보다 실용문에 많이 쓰인다.

ㄴ. 화려체

- 많은 수식어를 사용하여 화려한 느낌을 전달한다.
- 예술문에 많으며, 비유와 수식어가 많아 다변적이다.

- 지나치면 길만 화려하고 내용은 빈약해질 수 있으며 독자에게 환멸감을 주기도 한다.
- 진실되고 소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예)

작은 마음 시절에 나는 감꽃을 줌기 위해 수탉 해치는 소리에 잠이 깨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눈을 비비며 토방에 내려섰을 때, 출렁하고 발목을 적시던 새벽달빛. 감꽃을 주워올리면 달빛 또한 따라 올라와서 밀짚그릇 속의 감꽃 위를 새하얗게 남실거리고…… 발언턱을 지날 때였습니다. 무엇인가를 잊고 가는 것 같아서 뒤가 자꾸 돌아보여 발을 멈춘 순간. 토란 속잎 저 안으로 숨는 이슬방울, 들켜버린 알몸이 부끄러워서 이쪽을 향해 쏘아대는 그 이슬방울로부터의 빛살을 맞을 때는 눈을 비키곤 하였습니다.

(정채봉 「나를 행구어 주는 것들」에서)

바. 문장과 문체의 관계

- 문장 = 옷
- 문체 = 옷의 색깔, 무늬, 생김새

▲ 문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 말하듯이 써라.

- 나만의 문체를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을 그대로 표현해야 함.
- 자신의 상냥한 말투, 무뚝뚝한 말투, 나직한 말투 등을 그대로 쓴 후 다른 글들과 비교해 보라. 자기말투가 글로 옮겨졌을 때 어떤 색깔의 문체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맨 처음에는 말하듯이 쓸 것, 자기의 말투를 아는 것이 문체 만들기의 시작.

나. 목적에 맞게 선택, 결합하라.

ㄱ. 그의 취미는 ○○○이다.

- 그의 취미는 곤충수집이다.
- 그의 취미는 별레수집이다.
- 그의 취미는 버려지수집이다.

ㄴ. 그 ○○은(는) 멋있다.

- 그 사람은 멋있다.
- 그 녀석은 멋있다.
- 그 새끼는 멋있다.

ㄷ. 그의 ○○은(는) 절세미인이다.

- 그의 부인은 절세미인이다.
- 그의 마누라는 절세미인이다.
- 그의 깔치는 절세미인이다.

ㄱ. 결합

- 곤충수집이 취미인 그는 절세미인을 부인으로 두고 있는 멋있는 사람이다.
- 벌레수집이 취미인 그는 절세미인을 마누라로 두고 있는 멋있는 녀석이다.
- 버리지수집이 취미인 그는 절세미인을 깔치로 두고 있는 멋있는 새끼다.

※ 문체는 어떤 어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서로 비슷한 색깔을 가진 어휘들, 문장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ㄴ. 자신만의 비유를 찾아라.

예1)

비는 분말처럼 뭉근 알갱이가 되고, 때로는 금방 보폭이라도 뚫고 쏟아져 내릴 듯한 두려움의 결정체들이 되어 수시로 번덕을 부리면서 철후의 밤을 온통 물결레처럼 절편히 적시고 있었다.

(윤홍길 「장마」에서)

예2)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 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빙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김승옥 「무진기행」에서)

예3)

담장 밑에 백두룡은 함부로 다니다가 개한테 다리를 물렸는지 깃도 빠지고, 다리는 징검, 짚뿔 뚝뚝 울음 운다. 저의 아씨 야단 소리에 가슴이 두근두근, 정신이 월령월령, 정처 없이 가만히 살펴보니...

(「춘향가」에서)

예4)

혹은 내가 투구게처럼 갑갑하게 느껴지고 이 한 줌 하찮은 삶도 갑자기 자갈밭을 갈고 있는 보습처럼 못견디게 더워져서, 마침내 삶의 화두가 뻗쳐 올라와 물집투성이인 얼굴이 되었을 때 다시금 나는 떠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윤대녕 「신라의 푸른 길」에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성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보고 어떤 일정한 비유를 사용했는지 살펴 볼 것.(반복, 열거, 직유, 은유 등)• 문체를 위해 일부러 도드라져 보이기 위해, 그 느낌을 강렬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쓰는 표현을 찾아볼 것.• 다른 사람과는 차별되는 비유를 하는 경우를 찾아 볼 것.• 좋은 비유가 떠오르면 항상 메모하라. 비유로 문체가 달라진다. |
|--|

ㄷ. 어조를 결정하라.

- 어조 - 언어의 기교적인 배열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화자의 정서적 태도와 느낌. 언어에 의해 나타나는 분위기, 기분.(비아냥거리듯, 동정하듯, 담담하게 등.)
- 어조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문체를 만들어가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태도를 결정하고 어

조를 결정하라.

• 어조 결정 → 어조에 맞는 어휘를 선택 → 결합

※ 한번 결정한 어조,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2교시)

▲ 어조에 따른 분류

가. 해학적 어조 : 익살, 해학이 중심을 이루는 어조

예)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열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덩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껌짝도 못하게 해 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조겼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 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김유정 「봄 봄」에서)

나. 냉소적 어조 : 차가운 냉소가 주조를 이루는 어조

예)

피차 내용을 뻘뜨름하니 아는 처지라 정식으로 혼담이 오고 가게 되자 양쪽 어른들이며 금순이 편에서 의외로 결정적인 태도로 나오게 되었을 때 도일은 별로 구미가 당기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꼬집어 거절할 조건도 용기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이른테면 전차 같은 것을 타고 가다가 사소한 일로 이 정류장에서 내릴까말까 머뭇거리는 동안에 전차는 그만 떠나 버리고 말 듯이, 이 본새로 약혼이랍시고 이루어졌던 것이다.

(손창섭 「공휴일」에서)

다. 반어적 어조 : 진술의 표리를 가지거나 상황이 대조에 의한 어조

예)

김침지의 눈은 벌써 개개 풀리기 시작하였다. 석쇠에 얹힌 떡 두 개를 송덩송덩 썰어서 불을 불룩거리며 또 곱배기 두 잔을 부어라 하였다.

치삼은 의아한 듯이 김침지를 보며,

“여보게 또 붓다니, 벌써 우리가 녀 잔씩 먹었네, 돈이 사십 전일세.”

라고 주의시켰다.

“아따 이놈아, 사십 전이 그리 끔찍하냐.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느니.”

“그래 얼마를 벌었던 말인가.”

“삼십 원을 벌었어, 삼십 원을! 이런 젠장맛을 술을 왜 안 부어……. 괜찮다 괜찮다, 막 먹어도 상관 없어. 오늘 돈 산더미같이 벌었는데.”

“어, 이 사람 취했군, 그만두세.”

“이놈아, 그걸 먹고 취할 내냐, 어서 더 먹어.”

(현진건 「운수 좋은 날」에서)

라. 풍자적 어조 : 사물에 대한 풍자가 나타나는 어조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짖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

다.

“화적패가 있느냐야?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년 다 지내가고오…… 자 보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땡땡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어, 으응?” 땅— 방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든 요란스럽고 팔팔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난게아니라 모여 선 가권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거나 앓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채만식 「태평천하」에서)

▲ 개념적 문체와 생활적 문체

같은 정경, 다른 문체의 예)

언젠가 여름밤, 멀고 가까운 논에서 들려오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마치 수많은 비단 조개 껍질을 한꺼번에 맞부딪 때 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그 개구리 울음소리들이 나의 감각 속에서 반짝이는, 수없이 많은 별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느끼곤 했었다.

모닥불은 계속 지펴지는 데다 달빛은 또 그렇게 고와, 동네는 밤새껏 매양 황혼녘이었고, 뒷산 등성이 술수평 속에서는 어른들 코골음 같은 부엉이 울음이, 마루 밑에서 강아지 꿈꾸는 소리처럼 정겹게 들려오고 있었다. 췌췌췌……

▲ 바꿔 쓰기, 문체 만들기의 시작이다.

가. 다음 문장을 현대적인 문체로 바꿔 써 보자.

예)

그날 저녁 일과(日課)하고 한참 곤케 자노라니 천만의외 온 집안이 장승이 장을 서서 몸 한번씩 건드리고 말이 없이 나가거늘 강쇠가 깜짝 놀라 말하자니 안 나오고 눈 뜨자니 짝 붙어서 만신(萬身)을 결박(結縛)하고 각색(各色)으로 쭈시는데, 제 소견도 살 수 없어 날이 점점 밝아 가매, 강쇠 계집 잠을 깨니 강쇠의 된 형용(形容)이 정녕한 송장인데, 신음하여 앓는 소리 숨은 아니 끊겼구나. 깜짝 놀라 옷을 입고 미음을 급히 고아 소금 타서 떠 넣으며 온몸을 만져 보니, 이를 짝 아드득 물고 미음 들어 갈 수 없고, 낭자(狼藉)한 부스럼이 어느새 농창(濃瘡)하여 피고름 독한 내가 코를 들을 수가 없다.

(「변강쇠가」에서)

고쳐 쓴 예)

하루 일을 마친 강쇠는 그날 저녁 곤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온 집안에 장이라도 선 듯 장승이 몰려들더니 말도 없이 제 몸을 한번씩 건드리고 가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강쇠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함을 치려 했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눈을 뜨자고 했으나 무언가 온 몸을 결박한 듯 꿈쩍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어느새 먼동이 터 올랐다. 강쇠 옆에 잠들었던 여자는 이상한 낄새를 느끼고 몸을 후드득 떨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강쇠를 살펴보니 이건 영락없는 송장이 아닌가. 다행히 숨은 끊기지 않은 듯 가냘픈 숨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여자는 깜짝 놀라 옷을 입고 미음을 췌다. 소금으로 간을 맞춘 미음을 손가락으로 떠 넣어줬으나 미음은 강쇠의 입가로 주르르 흘러내릴 뿐이었다. 강쇠의 온몸을 만져보니 어느 곳 하나 부스럼이 생기지 않은 곳이 없고, 벌써 그 상처들이 굵

아들고 썩어 들어가며 풍기는 피고름 내가 코를 찔렀다.

※ 다음을 현대적인 문체로 고쳐 써 보세요.

옛날에 이퇴계 선생이 임금님의 부름을 받아서 서울로 처음 올라갔다. 퇴계 선생은 박식하다던 소문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퇴계 선생이 서울에 왔다니깐 사람덜이 많이 퇴계 선생한테 쫓아와서 만났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미알시런 사람이 와서 “여보시오, 당신은 모르던 것이 없이 무엇이던지 다 안다니 한 마디 물어볼 말이 있소. 대관절 우리가 썩 좃이란 말얼 씨넌디 이런 말이 어떻게 히서 생긴 말이요?” 하고 물었다.

그럼서도 심중에넌 저 점잖은 학자가 필연코 화를 내각고 너 이넘 뉘 앞이서 그런 쌍시런 말얼 허냐 하고 아조 크게 야단얼 칠 줄 알었넌디 퇴계 선생은 이외에도 태연한 낯빛으로 “썩이라넌 것엔 陰이라 濕氣가 많어서 濕이라고 이름얼 붙였던 것인디 그것이 어느새 訛傳이 되어서 썩이라고 하게 된 것이고, 좃은 陽이라 늘 乾燥한 것이여서 이것얼 燥라고 이름 붙였었넌디 차차 이것이 訛傳이 되어서 좃이 된 것이요.” 하고 말했다고 한다.

(임석재 『한국구전설화8』에서)

나. 다음 글을 어투가 다른 글로 고쳐 쓰자.

예)

그것만 보아도 벌써 그럴듯해요. 경제는 아저씨가 대학교에서 배웠다니까 경제 속은 잘 알 것이고, 또 사회는, 그것 역시 사회주의를 했으니까 그 속도 잘 알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하고 사회주의하고 어떻게 서로 관계가 되는 것이며 어느 편이 옳다는 것이며 그런 소리를 썼을 게 분명해요.

(채만식 「치숙」에서)

고쳐 쓴 예)

그것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대학교에서 경제를 배웠을 테니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사회 역시,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주의도 열심히 했으니 잘 알 것입니다. 아마도 경제와 사회주의의 관계,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을 다뤘을 게 분명합니다.

※ 다음을 현대적인 문체로 고쳐 써 보세요.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달걀 장수 노파가 오면 한꺼번에 열 알도 사고 스무 알도 사고, 그래선 두고두고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또 으레 나도 한 알씩 주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나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 그래 그담부터는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주요섭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

▲ 차별화, 낮설게 하기

예)

그네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여름의 그 공원을 거닐며 슬픔에 잠겼다. 이제 이 세상에서 그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메어지듯 아팠다. 단 한번만이라도 그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그네는 형언하기 어려운 절망으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고쳐 쓴 예)

여름 대낮의 그 정적과 따가운 햇빛, 그리고 그의 부재가 그네의 발걸음을 허청거리게 했다. 어쩌면 좋을 것인가.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텅빈 공원, 한여름의 그 질푸른 녹음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애로 일렁이기 시작했다. 보고 싶어요. 그러나 아득한 절망, 그네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 분위기를 지배하라

예)

그리고 여기서 나는 잠을 깨고 말았다. 임신한 여자가 손으로 나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리」 하고 그녀가 불렀다. 「주무시면서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고 몸을 이리저리 뒤흔들거려서더군요. 다른 쪽에다 잠자리를 깔아드리겠습니다. 제 아버님을 이리저리 밀치고 계시니까요..」 그녀는 야윈 두 다리와 불룩한 배를 움켜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잠들어 있는 사람의 담요를 끌어냈다. 잠들어 누워 있던 사람은 이미 죽은 노인이었다. 목은 찢겨져 나갔고 얼굴은 둘로 갈라져 있었다. 「나리」 유대인 여인이 깃털 침대를 흔들어 모양을 바로 잡으며 말을 계속했다. 「폴란드인들이 아버님 목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애원했지요. “죽는 모습을 딸이 보지 않도록 밖에서 죽여다오.” 그러나 그들은 아버님의 애원을 묵살했습니다. 아버님은 바로 이 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생각을 하시면서요. 그리고 이제 정말이지 알고 싶어요..」 여인은 갑자기 격한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제 아버님과 같은 또 다른 아버님을 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정말 알고 싶어요..」

(이사크 바벨리 「폴란드 진입」에서- 『소설의 분석』 <현암사>에서 재인용)

※ 좋은 소설은 거의 대부분, 한 편의 소설이 한 가지의 지배적인 정조로 되어 있다.